제1교시 언어 영역

1	②	2	①	3	③	4	④	5	⑤
6	③	7	⑤	8	④	9	②	10	②
11	⑤	12	⑤	13	①	14	④	15	④
16	③	17	⑤	18	①	19	②	20	③
21	③	22	④	23	②	24	①	25	④
26	②	27	⑤	28	③	29	②	30	①
31	③	32	⑤	33	④	34	②	35	②
36	⑤	37	②	38	⑤	39	⑤	40	①
41	③	42	②	43	①	44	①	45	③
46	②	47	④	48	①	49	⑤	50	⑤
51	②	52	③	53	④	54	①	55	③
56	③	57	④	58	④	59	④	60	①

1번. 이제 여러분은 남녀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 : 어, 저 해설자 좀 봐!
여자 : 아니, 왜 그래요?
남자 : 저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명색이 뉴스 해설자라는 사람이…….. 쯧쯧.
여자 : 뭔데 그래요?
남자 :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무리 고위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범죄를 말없이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묵과'라는 것이 '말없이 그대로 지나쳐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여자 : 그러네요, 정말!
남자 : 일반인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도 귀에 거슬리는데, 하물며 방송인이……. 방송인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잖아요. 어제도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아버님은 아무런 유언의 말 한 마디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라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여자 : 아하!(모르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네요. '남기는 말'이 바로 '유언'인데…….

2번. 이번에는 전통 건축물의 지붕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고궁이나 사찰에 많이 가보셨지요? 오늘은 전통 건축물의 지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통 건축물의 지붕은 그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붕의 측면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따라서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나누고, 위에서 내려다 본 형태에 따라 사각 지붕이라든지 육각지붕, 팔각 지붕으로 나눕니다.

맞배지붕은 가장 간단한 지붕 형태로, 지붕이 앞뒤 양면으로 경사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책을 반쯤 펴서 덮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덕사 대웅전이나 무위사 극락전 등 사찰의 주요 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진각지붕입니다. 이 형태는 지붕의 전후 좌우를 모두 기와로 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는 사다리꼴로 보이고, 측면에서는 삼각형으로 보이지요. 숭례문과 덕수궁의 대한문이 이 우진각지붕을 사용한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은 팔작지붕입니다. 이것은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을 혼합한 형태인데, 지붕의 측면이 삼각형 모양으로 노출되다가 중간 부분에서 처마까지 지붕을 달아 측면이 여덟 팔 자로 보이지요. 이 지붕은 화려하고 위용이 있어, 경복궁 근정전과 덕수궁 중화전 등의 조선 시대 궁궐의 정전이나, 불국사나 조계사의 대웅전 등 사찰의 중요 법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 이번에는 텔레비전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사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휴대 전화, 컴퓨터, PDA와 같은 디지털 기기는 인간의 기억 용량을 확장시켰지만, 기억력은 약화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사 : 네, 그것은 일종의 질환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디지털 치매'라고 합니다. 일본에선 최근 이 같은 증상을 'IT 건망증' 또는 'IT 멍청이'라는 신종 정신 질환으로 분류했을 정도입니다.
사회자 : 아, 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군요. 정신 질환으로까지 분류할 정도라면 특이한 증상이 있을 텐데요?
박 사 : '전화 번호 건망증'이 있는데, '디지털 치매'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죠. 휴대 전화가 거의 생필품처럼 쓰이면서 친구는 물론 가족의 전화 번호도 '단축키'로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1번, 부모는 2번,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집 번호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사회자 : 아,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증상은 기억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박 사 :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디지털 치매'는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뇌 운동량이 격감해 생기는 증상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는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복적 훈련이 필요한데, 각종 디지털 기기 때문에 이런 뇌 운동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IT 멍청이' 현상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뜻하는 전향성(前向性) 기억'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앞으로 전화를 걸 때는 원래의 전화 번호를 다 눌러야겠군요.
박 사 : 그렇습니다. '디지털 치매'는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고합니다. 이런 증상에 대해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뇌의 정보 저장 역할을 디지털 기기가 대신하면서 기억 능력이 퇴화하고, 결국 디지털 기기 없이는 간단한 정보조차 기억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번. 이번에는 기내 상영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난주에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뉴욕까지는 비행기로 열세 시간이나 걸리는데 무척 지루하더군요. 기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영화가 제가 보기에는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폭력물을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승무원에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기내에서 상영할 수 있는 영화가 갖춰야 할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지 뭡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물어봤지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더군요.

우선 상영 등급입니다. 탑승객의 연령이 다양하므로 폭력, 욕설이 나오는 영화는 안 된다는군요. 그러니 '친구', '조폭 마누라', '두사부일체' 같은 영화는 기내 상영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국적이나 종교가 서로 다른 다양한 승객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소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예술 영화보다 시간을 훌쩍 보낼 수 있는 오락물을 상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영 시간인데요, 식사와 면세품 판매, 취침 시간 등을 고려하다 보니 80분에서 110분 정도 걸리는 영화를 많이 상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항공사나 승객, 모두가 꺼리는 영화를 절대로 상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비행기 폭발이나 추락 장면이 있는 불길한 영화랍니다.

5번과 6번. 이번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상 예보관'과 나눈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지난 여름엔 장마가 끝난 뒤에 국지성 호우라고 불리는

집중 호우가 내려 전국적으로 피해가 막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상청의 예보관 한 분을 모시고 국지성 호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보관 : 예,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그런데 이렇게 뵈니까 정말 미남이시네요. 키도 크시고 젊으신데 결혼은 하셨나요?

예보관 : (당황한 듯) 아, 네…….

진행자 : 죄송합니다. 그럼 질문을 해 볼까요? 먼저 국지성 호우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보관 : 한 마디로 특정 지역에만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장마는 지역적으로 넓게 나타나는 데 비해 국지성 호우는 특정한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진행자 : 아, 특정한 지역이라서 '국지성[국찌썽]'이라는 말을 쓰는군요. 저는 '국지성[국지성]'이라고 해서 누구 이름인지 알았어요. 제 초등학교 때 남자 친구가 '김지성'이거든요. 그리고 축구 선수 '박지성'도 있잖아요.(웃음) 죄송합니다. 계속할까요? 그럼, 국지성 호우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죠?

예보관 : 예,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열대 기단과 북쪽으로부터 유입되는 한대 기단이 접촉하여 비를 머금은 구름대가 형성되는데, 이 구름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다가 산악 지대를 만나서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비를 뿌리게 됩니다.

진행자 : 어머, 그럼 산이 가까운 지역은 매우 위험하겠군요. 역시 사람은 평평한 땅을 찾기 마련인가 봐요. 산 쪽에 사는 여러분[여~러분] 평야로 내려오세요.(웃음)

예보관 :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매우 많은 지형이라서 호남 평야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사실상 이 국지성 호우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우리 기상청 장비로는 예보가 어렵고, 그래서 종종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심지어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소에 각자 잘 대비를 해야겠군요.

예보관 : 글쎄요……. 제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한 것은 국지성 호우는 그만큼 개인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자면 하천의 준설과 개보수, 양수 체제의 정비, 효율적인 예보 체제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거나 대비할 수는 없겠죠. 결국 국지성 호우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적어도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1~6] 듣기

1. **[출제 의도] 어법의 적용**

남자는 뉴스 해설자의 말 중에서 '그런 범죄를 말없이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구절에 사용된 의미상 중복된 표현을 문제 삼고, 방송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남자는 드라마에서도 '유언의 말 한 마디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라는 중복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②도 '뇌리(腦裏)'가 '뇌 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머릿속'과 의미상 중복된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① '도둑'은 잡거나 막아야 하고, 지키는 것은 '집'이어야 한다. ③ '연세가 많으셔서'로 써야 한다. ④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작은형'인지 '친구들'인지 불분명하다. ⑤ 보조사 '-치고'의 뒤에는 '-치고' 앞의 체언과 관련된 사항을 부정하는 내용이 온다.

2. **[출제 의도] 상세한 정보의 파악**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 보면, 팔작지붕은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을 혼합한 형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전면과 후면은 맞배지붕처럼 되어 있고, 측면의 윗부분은 맞배지붕처럼 벽면이고, 아랫부분은 기와를 얹은 지붕이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에 부합하는 그림은 ①이다.

[오답 피하기]

② 사각 지붕 ③ 우진각지붕 ④ 맞배지붕 ⑤ 팔각 지붕

3. **[출제 의도] 말하기 방식 이해**

박사는 일본의 한 연구소의 보고서와 신경정신과 의사들의 경고를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인용은 출처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남의 의견인 것처럼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박사는 '디지털 치매', 'IT 건망증', '전화번호 건망증'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답을 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④ 사회자는 시청자들과 친근한 디지털 기기가 인간의 기억력을 약화시킨다는 항간의 의문에 대해 박사에게 문의하는 것으로 대담을 시작하여, 관련된 증상의 존재 여부와 대응책에 대한 질문 등으로 대담을 유도하고 있다.

4. **[출제 의도] 핵심 정보의 파악**

기내에서 80~110분대 영화를 많이 트는 것은 식사, 면세품 판매, 취침 시간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지 비행기의 안전한 운항 때문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첫째 조건으로 탑승객의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등급 등을 상영할 것이다. ② 둘째 조건으로 국적이나 종교가 다른 승객임을 고려한다고 했다. ③ 셋째 조건으로 예술 영화보다는 오락 영화를 튼다고 하였다. ⑤ 마지막 조건으로 비행기 추락 등 불길한 영화는 절대로 상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5. **[출제 의도] 말하기 방식에 대한 비판**

진행자는 대담을 부드럽게 진행하기 위한 의도로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했겠지만, 너무 지나쳐서 화제에 벗어나고 있다. '국지성'이라는 용어를 듣고는 '김지성', '박지성'을 언급한다든가,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은 평야로 내려오라는 등의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예보관에게 항상 정중한 높임말을 쓰고 있으므로, 아랫사람 대하듯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② 농담이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흠이 될 정도이다. ③ 진행자는 농담을 한다거나 내용을 요약하는 발언을 한 것 외에는 모두 물어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유식함을 과시한 적이 없다. ④ 진행자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6. **[출제 의도]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예보관은 국지성 호우에 대해 개인적인 대처보다는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③과 같은 개인적 대처 방식은 예보관이 강조한 대처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⑤ 모두 국지성 호우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해당된다.

[7~12] 쓰기

7. **[출제 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내용 파악**

'산불을 예방하여 자연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맞으면서도 이를 앞 장면과 연결시키고 표현을 우회적으로 해야 한다. ㉠이 제시될 장면과 그 앞 장면에서 숲 속의 동물들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산불 예방', '자연 보호' 등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한 ⑤가 주어진 조건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은 '산불 예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우회적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8. **[출제 의도] 글감의 구체화와 해결 방안 모색**

④에는 헌혈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④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헌혈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꿔주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피하기]

③은 "헌혈을 하고 나면 내 몸의 피가 부족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내용이다.

9. **[출제 의도] 올바른 개요 작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의 서론은 문제 상황을 제시한 뒤에 나와야 하므로 글의 뒷부분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가)의 본론에는 중심 화제와 관계 없는 '심각한 언어 오염 실태'가 들어 있다. 그리고, 본론의 3.은 '사라져 가는 방언 정리'는 방언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가) 개요의 다른 항목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가)는 주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내용이 통일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적절하게 고친 것이 (나)의 개요이다.

[오답 피하기]

(나)의 개요도 (가)의 개요와 동일한 해결 방안과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④는 적절한 판단이 아니다.

10. **[출제 의도] 내용의 구체화**

개요 (나)의 '본론 1'에서는 표준어와 방언의 특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②는 표준어의 특징은 제시하지 않고 '공적(公的)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비판이나 반론을 제시하면서 화제를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①은 '서론'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는 소설이나 드라마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방언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방언의 효과적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다.

11. **[출제 의도] 어법과 문맥에 맞는 표현으로 고쳐쓰기**

㉤의 앞과 뒤의 문장은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은 '그런 뒤에'의 의미가 담길 수 있는 '그리고'가 적절하다. '그래서'는 인과 관계로 이어질 때 사용되고, '그런데'는 화제를 전환할 때 사용되므로 모두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 의도]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 찾기**

'설레임'은 기본형이 '설레다'이므로 명사형은 '설렘'이다.

[오답 피하기]

'백분율'의 '율(率)'은 합성될 때, 앞말에 따라 '율' 또는 '률'로 적는다. 즉, 앞말이 모음 또는 'ㄴ'으로 끝날 때는 '율'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률'로 적는다. 따라서 '비(比)'와 결합할 때는 '비율(比率)'로 쓰고, '능(能)'과 결합할 때는 '능률(能率)'로 쓴다.

[13~17] 현대 산문(소설), 김동리 '역마'

인간과 운명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역마살(驛馬煞)을 지닌 성기가 그 역마살을 풀어 보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여 길을 떠나는 것으로 종결된다.

13. **[출제 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이나 성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채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성기의 두 눈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계연과 성기가 헤어지는 상황의 심리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사건의 전개를 서술자가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으며, 치밀한 배경 묘사도 ㉠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분석하고 있지도 않다.

14. **[출제 의도] 구성 요소의 기능 파악**

계연과 헤어진 후 앓아 누웠던 성기는 기운을 다시 회복한 후, 엿판을 맞춰 달라고 요구한다. 죽음과 유랑의 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여 유랑의 삶을 선택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은 성기가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유랑의 삶을 선택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관련한 단서를 찾을 수 없으며, 이후에도 새로운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15. **[출제 의도] 다른 상황에의 적용**

ⓓ를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경우라면 표정 연기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새로운 결심을 한 듯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모습을 대사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와 ⓑ, ⓒ는 '옥화'의 대사로, ⓔ는 '성기'의 대사로 바꿔 각색할 수 있다.

16. **[출제 의도] 장면의 추리**

계연은 성기와 헤어질 때 기적과도 같은 명령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성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지켜보고만 있다. 즉, 붙잡아 주었으면 하는 계연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성기는 계연을 가지 말라고 붙잡지 않는다. 따라서, 성기가 계연을 가지 말라고 붙잡는 장면은 상상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은 체 장수 영감이 옥화에게 계연을 맡긴 것, ②는 성기가 앓아누워 있는 것, ④는 '팔다 남은 이야기 책 몇 권'이라는 말, ⑤는 엿판을 메고 떠나는 마지막 부분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다.

17. **[출제 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운명적으로 타고난 성기의 역마살을 풀어 보려고 옥화는 갖은 노력을 한다. 절에도 보내고 계연과 결혼시켜 정착시키려 하지만 허사가 된다. 결국 병을 앓고 난 후 성기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여 엿판을 메고 길을 떠난다. 따라서 독서 노트에 제시된 ㉮는 적절한 감상이라 할 수 없다.

[18~21] 언어, 6차 교육과정 문법 교과서 중에서

이 글은 비록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해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이 언어 능력을 갖춘 뒤에는 언어와 사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구체적 예를 들어 밝히고 있다.

18. **[출제 의도] 제시된 정보 확인**

이 글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밝힌 글이다. 물론 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어와 문화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19. **[출제 의도] 논거의 적절성 평가**

㉠은 '언어가 없어도 사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므로, ㉠을 뒷받침하는 논거로는 '언어 능력이 성숙되기 전의 어린이'의 예(例) 같은 것이 적합하다. ②는 아직 언어 능력이 충분히 성숙되기 전의 어린이의 예로 비록 언어는 없지만(말을 못하고 글을 모르지만) 생각(사고)은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오답 피하기]

① 글만 모를 뿐 말(음성 언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른 수단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예일 뿐이다. ④ 과묵한 성격일 뿐 언어(말이나 글)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⑤ 오랫동안 사귀어 왔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경우로 언어 없이 사고를 하는 예로 보기 어렵다.

20. **[출제 의도] 사전적 의미 파악**

㉡은 '(어떤 일을) 재촉하여 빨리 진행하도록 함'의 뜻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전진(前進), ②는 증가(增加), ④는 성장(成長), ⑤는 증진(增進)의 사전적 의미이다.

21. **[출제 의도] 새로운 상황의 적용**

㉢은 '사물의 공통성을 추출하는 사고 작용'인 추상화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③은 '소'가 '개, 닭, 돼지' 등과 공통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동물인 점을 인식하여 '가축'으로, 이를 다시 한 단계 더 일반화하여 '동물'로 추상화한 예(例)이다.

[22~26] 현대 운문
(가) 유치환, '바위'
이 시는 바위를 소재로 하여 절대적인 초월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결의를 노래한 작품으로, 그 의지에 걸맞게 단호하고 강인한 남성적 어조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나) 천상병, '귀천(歸天)'
이 시는 두고 가야할 세상에 대해 미련도 집착도 없는 무욕(無慾)의 경지에서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사람의 말투로, 아무런 기교 없이 자신의 심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독백과도 같은 작품이다.
(다)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
이 시는 젊어서 죽은 화가를 화자로 하여 정열적인 삶의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시어와 단호한 명령형을 통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못다 한 사랑과 꿈을 노래하는 모습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22. **[출제 의도] 공통 태도의 평가**
(가)의 시적 화자는 '애련', '희로' 같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와 바람'으로 표현된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을 안으로 다스리며 자신을 채찍질하여 더욱더 의지적인 인간이 될 것을 '내 죽으면~'이라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드러내고 있다. (나)의 시적 화자는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죽음의 수용과 삶의 집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는 이미 죽은 청년 화가 L이 자신의 죽음을 노래하는 형식을 취하여 죽음을 초월한 그의 삶에의 열정과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따라서, (가)~(다)의 시적 화자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인생관'을 피력하는 공통 태도를 취하고 있다.

23. **[출제 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나)의 시인은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사람의 말투로, 두고 가야 할 세상에 대해 아무런 미련도 집착도 없는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하늘로 돌아가면서 동반할 것이라고는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과 '노을빛'밖에 없다는 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운 자의 달관을 볼 수 있다. 이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닌 시인의 인생관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②가 이 시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평가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이승에서의 삶을 하나의 '소풍'에 견준 것은, 인생을 하늘에서 잠시 지상으로 떠난 아름다웠던 소풍의 여정이라는 생각을 통해 인간과 하늘을 절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인간을 우주의 한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죽는다는 뜻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라는 구절을 반복하는 이유는 시인이 죽음이나, 이 세상에 대해 미련도 집착도 없는 무욕(無慾)의 경지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④ '이슬'과 '노을빛'은 시인이 이 세상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달관의 경지에 있음을 보여 주는 시어이다. ⑤ 말없음표는 실제의 삶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삶을 달관한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 자신의 삶도 아름다웠던 적이 있었다는 화자 나름대로의 평가를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다.

24. **[출제 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추리**
(나)의 '하늘'은 '돌아갈 곳'을 의미하는데,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 끝나는 날'이라는 구절과 연관시켜 볼 때, '죽음'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의 시적 화자는 보리밭 사이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를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는 꿈을 간직하며 살던 자신의 삶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의 '하늘'은 이러한 '나의 꿈'이 지향하는 세계이므로 결국 '이상'을 의미한다.

25. **[출제 의도] 새로운 상황의 적용**
이 시는 이미 죽은 청년 화가 L이 자신의 죽음을 노래하는 형식을 취하여 죽음을 초월한 그의 삶에의 열정과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젊은 화가이며 묘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다. 이 시는 '노오란 해바라기'와 '끝없는 보리밭'을 통해 뜨거운 생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데, 노란색과 푸른색의 색채의 대조로 인하여 더욱 싱싱하고 강렬한 생명 의식을 느낄 수 있으므로, 고흐의 그림처럼 원색의 강렬함을 살리는 그림을 연상케 하는 면이 있는 작품이다.

26. **[출제 의도] 함축적 의미의 유사성 추리**
㉠은 '애련', '희로' 같은 감정이나 '비와 바람'의 가혹한 시련을 안으로 다스리며 자신을 성찰하겠다는 표현이다. ②는 마음 속의 고뇌나 슬픔을 가라앉히기 위해 수를 놓다 보면 오랜 번민이 가라앉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심경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①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당신과 나의 관계를 행인과 나룻배에 비유하여 참된 사랑의 본질인 희생과 믿음을 드러낸 작품이다. ③ 이 시는 목적지를 상실한 나그네의 비애를 노래한 작품이다. ④ 이 시는 소박한 전원 생활을 제재로 노래한 작품으로 자연 친화적인 삶의 자세가 드러난 작품이다. ⑤ 이 시는 모란을 소재로 하여 한시적(限時的)인 아름다움의 소멸을 바라보는 시적 자아의 비애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27~31] 예술, 진중권 '미학 오딧세이 2'
글쓴이는 엔트로피를 '사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예술에 적용하면서, 현대 예술은 의미 정보를 단순화하고 미적 정보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밝히고 있다.

27. **[출제 의도] 제시된 정보 확인**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는 고전 예술과 현대 예술의 차이를 밝히면서, 현대 예술은 의미 정보를 단순화하고 미적 정보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⑤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8.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의 적용**
㉠은 사건을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엔트로피는 커지고, 그럴수록 정보 가치도 커진다는 생각을 예술에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③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거의 없으므로 엔트로피가 낮다.(스토리가 분명히 예측 가능하다.)

29. **[출제 의도] 맞춤법에 맞게 쓰기**
㉡은 '짐작하건대'의 준말이다. 이 표기와 연관된 '한글 맞춤법' 규정이 제39항과 제40항인데, ㉡은 그 중에서 제40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예이다.

30. **[출제 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 성어 사용**
㉢은 예술 작품에서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면 참신해져 엔트로피가 늘어나지만, 그 정도가 심해 예측 불가능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예측 불가능성이 적절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에 적절한 한자 성어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중용(中庸)이 중함'을 이르는 말인 '과유불급'이다.
[오답 피하기]
②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 격]에서 '어려운 일이 연거푸 일어남'을 비유하여 쓰는 말. ③ 갈수록 더욱 좋거나 재미있는 경지(境地)로 들어감, 또는 그 모양 ④ [비단 위에 꽃을 보탠다]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함. 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 되지도 않는 엉뚱한 소망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31. **[출제 의도] 새로운 상황의 적용**
'미적 쾌감'은 의미 정보가 강한 경우보다 미적 정보가 강조된 경우에 느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의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③이 가장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가 힘들다.

32. **[출제 의도] 상황의 추리**
연극 공연은 대본인 희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지문에서 춘풍의 처는 기절해 있다가 춘풍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 춘풍의 초라한 형색을 살피고 운다. 이것은 춘풍의 처가 춘풍을 염려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따라서, 춘풍에게 염려하는 표정을 짓는 것은 어울리지만 냉담한 표정을 짓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이지와 덕중은 춘풍의 처를 돕는 처지에 있다. ② 부가 봉사(소경)이라는 점은 춘풍의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춘풍은 처가 죽어서 제문을 올리고 있는데도 추월의 아리따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처가 모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처가 깨어난 다음에도 귀찮아서 뿌리치고 있다. ④ 춘풍이 자기의 처가 죽어서 제문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돈 타령을 했는데, 덕중은 이 모습을 보고 춘풍에게 핀잔을 주고 있다.

33. **[출제 의도] 상황의 비판적 이해**
지문에서 춘풍의 처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표출하고 있고, 춘풍은 죽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비극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춘풍은 아내가 죽은 상황인데도 아내가 모은 돈을 탐내고 있다. ② 죽은 자식들에 대해 말하는 춘풍 처의 대사에는 장난끼가 섞여 있다. ③ 이지의 대사를 통해 춘풍의 처가 고생을 몹시 해서 돈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식 셋이 모두 죽은 고난을 겪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⑤ 춘풍은 처를 통해서 자식 셋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섧게 울었다.

34. **[출제 의도] 의도의 이해**
<보기>의 제시문은 ㉠에 비해 내용이 많고 장황하다. 그런데, <보기>는 과거의 시대상을 담고 있어서 요즘의 현대인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춘풍의 처가 고생을 했다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은 이렇게 길게 반복되는 내용이 현대인인 관객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짧게 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은 <보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③ ㉠에는 토속적 어휘(방언)로 대체된 것이 없다. ④ 새로운 표현 기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보기>의 어휘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35. **[출제 의도] 태도의 이해**
㉡은 덕중이 춘풍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핀잔을 주는 대사이므로 못마땅한 태도, 한심스러워하는 태도 등이 어울린다.

[36~40] 고전 운문
(가) 정서, '정과정(鄭瓜亭)' : 작가는 유배지에서 임금의 부름을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자,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 이 노래를 지었다.
(나)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 작가 정철이 유배지에서 지은 노래이다. 작가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여인의 사랑에 비유하여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36. **[출제 의도] 작중 화자의 정서 파악**
(가)의 화자는 사람들의 참소 때문에 귀양왔다는 점을 밝히고,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방식으로 바꿔 표현한 것이다. (나)의 화자는 시종일관 임을 그리워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표현하여, (가)와 마찬가지로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임을 비난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의 화자는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데 그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7. **[출제 의도] 작중 화자의 태도 이해**
(가)의 화자는 임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자신의 충정을 헤아려 다시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②의 화자도 임에게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더라고 임이 알아서 헤아려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을 강가의 한가로운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③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④ 굽힘 없는 절개를 노래하고 있다. ⑤ 망한 고려의 궁궐 터를 보면서 느끼는 덧없음(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다.

38. **[출제 의도] 의도와 표현의 관계 이해**
(나)의 화자는 임의 곁에 가서 지내고 싶어하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범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의 곁에 있고자 한다. 범나비는 화자의 분신으로서 화자가 자신을 다른 존재로 변용시킨 대상이다.

39. **[출제 의도] 소재의 특성과 기능 파악**
'접동새'는 주로 '한(恨)'을 노래하는 작품에 많이 쓰인다. 이 작품에서도 '접동새'는 '한(恨)'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접동새'를 '참새'나 '까치'로 바꾸면 '한(恨)'의 정서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40. **[출제 의도] 분위기 이해**
㉡은 온 세상에 눈이 내려 인적이 끊어지고 동물들의 발길도 끊어졌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다.

[41~45] 인문, 이순근 '힘인가? 지략인가? 민심인가?'
이 글은 왕건이 어떻게 견훤과 궁예를 누르고 최후의 승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글이다. 글쓴이는 왕건이 정세 변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점, 토착 세력 출신이므로 군소 지방 세력을 포용할 수 있었다는 점, 정확한 역사 의식으로 민심을 얻는 등의 탁월한 지도력과 정책으로 정치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41. **[출제 의도] 핵심 정보의 파악**
개관에서 밝혔듯이, 이 글은 왕건이 어떻게 견훤과 궁예를 상대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를 설명한 글이다.
[오답 피하기]
①이나 ②는 왕건이 정확한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다룬 내용일 뿐이다.

42. **[출제 의도] 세부적인 정보의 확인**
제시된 지문의 후반부에서 석총이 미륵불을 자처하는 궁예를 비판했다고 하였으므로 ②와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경보가 왕건을 지지한 것은 왕건이 민심을 얻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일 뿐이다. ③ 글의 앞부분에서 '견훤은 기민한 전술과 거침없는 국가 운영력을 보였다.'고 언급하였다. ④ 궁예와 견훤이 모두 '폭풍 같은 추진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⑤ 왕건이 '우유부단'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왕건은 정확한 정세 판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할 수 있다.

43. **[출제 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
①은 글쓴이가 왕건이 '어려운 시대'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언급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반응이 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② 궁예는 민심을 잃어 실패했고, 왕건은 민심을 얻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반응이다. ③ 석총의 비판을 받은 궁예, 경보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견훤이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한 반응이다. ④ 권력과 위세로 폭압적 정권을 유지했던 궁예와 견훤이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한 반응이다. ⑤ 왕건이 정세 변화를 정확히 판단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반응이다.

44. **[출제 의도] 적절한 대체어의 파악**
'지나지 아니하다'는 '불과(不過)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45. **[출제 의도] 비유적 의미의 적용**
넷째 단락을 통해서 볼 때, 왕건은 세금 감면을 비롯한 경제적 안정책을 통해 민심을 얻었다. 이것은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휴식'에 대응하는 것은 '생활의 안정'이다.

[46~50] 과학, 이은희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먼저 환경 호르몬에 관한 기사를 소개하면서 화제를 제시한 뒤, 환경 호르몬의 개념과 역할 등을 소개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환경 호르몬의 문제점을 밝혔다. 특히 생식 기능과 관련된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여 환경 호르몬에 대한 경각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체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예방법 마련이 쉽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46. **[출제 의도] 내용의 파악**
②와 관련된 내용은 둘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이다. 하지만 둘째 문단의 '환경 호르몬은 67종'과 마지막 문단의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 호르몬 기능을 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를 통해서는 ②를 알 수 없다.

47. **[출제 의도] 상황에 맞게 적용**
이 글은 환경 호르몬의 개념과 부정적 기능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환경 호르몬은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고 각종 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므로 이 점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런데 기사의 표제는 구체적인 사건을 앞세우고 핵심이나 주제는 부제로 표현하므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48. **[출제 의도] 어휘의 올바른 사용**
①은 생물을 종류에 따라 나누고 있으므로 '분해'를 '분류'로 바꾸어야 써야 한다.

49. **[출제 의도] 개념의 정의**
'생물 농축 현상'은 환경 속의 특정한 물질이 생물체 안에 축적되어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오답 피하기]
①~④는 먹이사슬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특히 ①과 ④는 예에 불과한 '다이옥신'을 일반화하지 않았다.

50. **[출제 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
환경 호르몬은 인간을 위한 산업 활동 중에 의도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⑤가 적절하다. ⑤는 자신이 한 일이 자기에게 피해가 되었을 때에 쓰는 속담이다.
[오답 피하기]
① 보잘것없는 것도 마음에 들면 좋아 보인다는 뜻. ② 자기에게만 좋게 하려고 꾀하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 아전인수(我田引水) ③ 나쁜 버릇은 쉽게 고치기 어렵다는 뜻. ④ 남에게 잘 해 주고도 오히려 해를 당하였을 때 하는 말.

[51~55] 고전 산문, 박지원 '허생전'
조선 후기의 실학자·소설가인 연암 박지원의 한문 소설을 국역한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허생의 상행위(商行爲)를 묘사하는 가운데 부국 이민(富國利民)의 경제 사상과 건전한 인본주의(人本主義)를 내세우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51. **[출제 의도] 글의 내용 추리**
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허생과 변씨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변씨는 허생의 인물됨을 알고 허생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다. 허생은 여기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말하지만 부귀나 관직에는 뜻이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변씨가 허생을 내세워 자신의 재산을 더 늘리려고 한다는 것은 추리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다)에서 허생은 조선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장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상술에 자신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마)에서 집정자들이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아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인재 등용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④ (나)와 (다)의 내용을 통해 변씨가 허생에게 만 냥을 빌려주고 십만 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냅지요'를 통해서 추리할 수 있다.

52. **[출제 의도] 새로운 상황의 추리**
(다)에서 허생은 "조선은 외국에 배가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서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라고 하였다. 또한, <보기>에서도 '물화의 생산과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원활한 물화 이동을 위해 뱃길을 통한 무역을 자유화하고 국내의 물화 이동을 위해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다.

53. **[출제 의도] 말하기 방식의 파악**
(마)에서 허생은 조성기, 유형원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집정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54. **[출제 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
변씨는 허생이 모르게 그의 뒤를 따라가서 그의 집을 알아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려고 몰래 뒤를 밟는 일'인 '미행(尾行)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② 따라감. 따라서 실행함. ③ 명령대로 시행함. ④ 길을 같이 감. ⑤ 데리고 감. 피의자 등을 체포하여 동행함.

55. **[출제 의도] 문맥적 의미의 파악**
'베잠방이'는 원래 '베로 만든 무릎 정도까지 오는 바지'인데, 이 바지는 평민들이 주로 입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의 '베잠방이'는 평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은 허생이 인재 등용 제도를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은 평민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의미에, 관직에 등용되지 못한 채로 늙어 죽었다는 의미가 더해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56~60] 사회, 이준구 '열린 경제학'
'가격 차별'의 개념을 시골 의사의 치료비 징수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56. **[출제 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
시골 의사의 치료비 차별 사례를 들어 '가격 차별에 의한 이윤 극대화'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57. **[출제 의도] 논거의 적절성 평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을 뒷받침한 구체적 사례를 보면, 치료비의 높고 낮음에 민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낮은 치료비를 받고, 반면 치료비의 높고 낮음에 별로 개의치 않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높은 치료비를 받는 것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 차별 방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을 서민들이 주로 찾는 재래 시장에는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주로 찾는 백화점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기업의 가격 차별을 통한 이윤 극대화의 방법을 적용한 예이다.

58. **[출제 의도] 의미 관계 파악**
이 글의 논지로 볼 때, '가격 차별'은 수단이고 '이윤 극대화'는 목적에 해당한다. 법률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은 수단이고 '질서 유지'는 목적에 해당한다.

59. **[출제 의도] 사고 과정의 전제 파악**
가격 차별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공급하는 사람은 독점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경쟁 공급자가 있으면 고객이 분산되어 가격 차별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그 마을에 의사가 단 한 명일 때 가격 차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60. **[출제 의도] 핵심 정보 파악**
가격 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는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 따라서 ⓐ는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극감해야 하고, ⓑ는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아주 적게 감소해야 한다.